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WHAT ALICE KNEW

가제 : 앨리스가 아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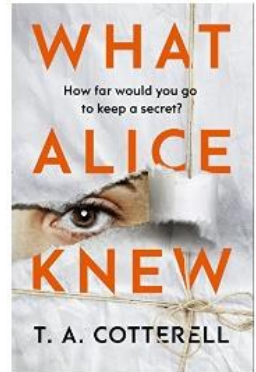
저자 : T.A. Cotterell

출판사: Black Swan

발행일: 2017년 4월 20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스릴러



- * “책장을 계속 넘기게 만드는 데뷔작. 충격적인 결말이 책을 다 읽고 나서도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는다.” – 루이스 보스(Louise Voss)
- * 리앤 모리어티(Lianne Moriarty)의 『Big Little Lies』, 르네 나이트(Renee Knight)의 『Disclaimer』에 비견되는 소설
- * 서로간의 믿음과 비밀, 관계, 가족의 의무에 관한 탐구

화가인 앨리스의 주 고객은 자신이나 가족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사람들이다. 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그 행복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상화를 택한다. 앨리스는 멋지게 차려 입고 자신과 마주한 모델들을 말없이 그림으로 담아내지만 그녀가 그리는 건 겉모습만이 아니다. 앨리스는 모델의 진짜 모습,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그들의 배경이나 억지로 지어낸 표정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초상화에 녹여내는 일에 몰두한다.

은발이 섞인 나이트 의뢰인의 젊고 아름다운 아내 줄리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앨리스는 모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몸에 꼭 끼는 드레스를 입고 한껏 부풀린 헤어스타일로 단장한 줄리는 고급스러운 벨벳 의자에 앉아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꿈지락거렸다. 저 정도의 미모와 적당한 지성이 없었다면 줄리도 외롭고 부유한 노신사의 아내 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슈퍼마켓에서 싸구려 식료품을 찾아 통로를 헤매며 여생을 보냈겠지. 어떻게 보면 저 자리를 쟁취할 만큼 강하고 야무진 구석이 줄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했다. 앨리스는 캔버스에 그려진 모델과 주변 인물의 미묘한 힘 대결, 내면에 억눌린 두려움, 사랑, 믿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남편 에드를 떠올렸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에드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입술 모양 이모티콘을 가만히 보면서, 줄리의 나이트 남편은 그녀와의 밀회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새로운 결혼을

결심한 후 어떤 이모티콘을 보냈을까 궁금해졌다. 은밀한 관계였을 때와, 공식적인 부부가 됐을 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까? 달라졌다면, 줄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뜬금없는 궁금증은 앨리스에게 더 없는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에드가 보낸 입맞춤 이모티콘은 하나하나가 다 진실하기에, 늘 보내는 것이고 예측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알기에 고맙고 행복했다. 앨리스가 모델의 삶과 비교하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만큼 흠 잡을 곳 없었던 그 삶이, 일순간 망가지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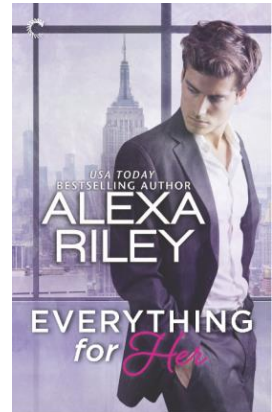
산부인과 의사로 잘 나가는 남편 에드와 사랑스러운 두 아이 넷과 아서는 앨리스의 모든 것이었다. 에드는 능력 있는 남편에 아이들에게도 소홀함이 없는 완벽한 남자였고, 초상화를 그리며 늘 자신의 본능과 직감을 더욱 믿게 된 앨리스는 남편이 가정과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에드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전혀 에드 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더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까지 생긴다. 난데없이 시작된 파국은 앨리스가 정신차릴 틈도 주지 않았다. 에드는 젊은 여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시인했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밤에 여자가 죽은 채로 발견된다. 그 사건은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마지막 목격자는 다름아닌 에드였다.

에드는 사고라고 했다. 앨리스는 혼란에 빠져 그 말을 일단 믿고 그를 감싸주기로 결심한다. 에드가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그와 함께 입을 다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고 처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밝혀지자 앨리스는 엄청난 갈등에 휩싸인다. 과연 에드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일까? 사고였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자신과 에드의 결정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지금은 무사히 넘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넷과 아서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늘 다른 사람의 삶에서 진실을 발견하려 애썼던 앨리스는 에드에 대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진실이며 그것이 어떤 무게로 가족 모두를 짓누르는지 답을 찾으려 안간힘을 쓴다. 그리고 이야기는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저자 소개>

T.A 코터렐(T.A Cotterell)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시 소속 직원으로 일하다가 프리랜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여러 매거진에 글을 기고하면서 현재 리서치 업체 레드번(Redburn)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제목 : EVERYTHING FOR HER
가제 : 전부 그녀의 것
저자 : Alexa Riley
출판사: Carina Press
발행일: 2016년 12월 2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에로틱 로맨스



- *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작가, 8개월간 아마존 에로틱 소설 부문 작가 1위에 오른 알렉사 라일리 (Alexa Riley)가 처음으로 완성한 장편 신작
- * 단 한 사람의 여자를 위해 4년간 그녀의 모든 인생을 디자인한 백만장자, 똑똑하고 사랑스럽지만 불우한 삶을 살았던 여자의 진한 로맨스

50편이 넘는 단편과 중편 로맨스 소설로 아마존 킨들 스토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가 처음으로 장편 소설에 도전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깊은 상처를 안고 남몰래 복수를 꿈꾸며 살아온 남자가 소유하고 싶은 여자를 위해 그녀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이번 이야기는 독자의 판타지를 깨우고 있는 작가 특유의 섬세한 묘사와 결합된 에로틱 로맨스 소설로 완성됐다. 모두에게 거칠지만 사랑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백만장자 남자주인공 오즈, 영리한 두뇌를 갖고 태어났지만 가족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온 여주인공 말로리의 만남은 서로를 향해 대담하게 모든 걸 내던지는 거칠 것 없는 사랑을 제대로 보여준다.

오즈가 처음 말로리를 본 건 예일대학교 초청으로 가지못해 참석한 수학 경시대회에서였다. 코네티컷 주 전체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오즈는 심사위원을 맡아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스물두 살,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 받은 그는 예일 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상위 1 퍼센트 우수생으로 졸업했으니 학교로선 자랑스러운 인물이었고 초청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늘 반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며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온 오즈에게는 사실 남모름 목표가 있었다. 아직 드러낼 수 없는 복수의 대상과 제대로 마주할 때까지, 오즈는 속으로 미움을 씹어 삼키며 억누르기만 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날, 다시 찾은 모교에서 그간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버렸다. 오즈에게 그 날은 마치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처럼 도로시가 낯선 오즈의 나라에 나타난 것과도 같았다. 대회장에서 만난 한 소녀 때문이었다.

미국 최고의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꼽히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하려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말로리는 똑똑한 입학 후보자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가족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그 당찬 여학생은 학교의 후원을 받고 출전한 경시대회에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모든 문제에 도전했다. 흔들림 없는 모습, 확신에 가득 찬 말로리를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오즈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앞으로도 절대 느끼지 못할 강렬한 감정에 빠져든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오즈는 1등을 휩쓸고 대회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말로리를 말없이 눈으로 쫓았다. 처음 본 그녀가 우승을 거둔 것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랑스러웠다. 이제 열일곱, 아직 어린 말로리는 오즈가 인생에서 성취한 가장 거대한 성과가 될 것이다. 오즈는 점점 멀어지는 말로리를 보며 그렇게 예견하고, 다짐했다.

몇 년 후, 예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말로리는 오스본 사에서 운영하는 인턴 프로그램에 선발됐다. 대학생 내내 오스본 사가 후원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나 기숙사비, 전공서적을 사는 돈이나 식비까지 어느 것 하나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 인턴 자리를 얻은 것이다. 사실 다른 업체들에서는 인턴 제의가 한 건도 오지 않아 내심 실망하기도 했지만, 오스본 사는 미국 전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아닌가. 대학 때부터 친 자매처럼 함께 지내온 친구 페이지가 뉴욕에 작은 아파트를 얻고, 같이 살자고 고집을 부려준 덕분에 졸업한 후에도 지낼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행운까지 찾아왔다. 그 동안 순탄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하고 야무진 말로리의 능력이 큰 몫을 하기도 했지만, 말로리는 그 뒤에서 세심하게 돌봐준 한 남자가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오직 자신을 향한 길로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오게끔 만들어온 사람, 이제 그와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침내 마주한 말로리와 오즈는 뜨거운 감정에 휩싸인다. 말로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너무 대담하게 다가오는 오즈에게 당혹감을 느끼며 무례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너무 오래 기다려온 오즈는 이제 한시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저 말로리를 향한 마음을 서슴없이 드러낼 뿐이었다. 말로리가 서서히 오즈에게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영혼을 빼앗긴 두 사람은 무엇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다. 말로리는 대학생들과 취업까지, 지난 4년간 순탄하기만 했던 삶이 한 남자가 디자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즈를 떠나지 않을까? 오즈가 숨기고 있는 복수의 대상은 누구일까? 곧 비밀이 들통날 것 같은 조마조마한 순간만큼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뜨거워진다.

<저자 소개>

알렉사 라일리(Alexa Riley)는 축구, 도넛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에로틱 로맨스 소설을 수십 편 발표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단숨에 읽을 수 있고 가슴 뛰게 만드는 사랑 이야기를 쓰는 데 주력해 왔다.

제목 : THE WOMAN IN THE WINDOW

가제 : 창문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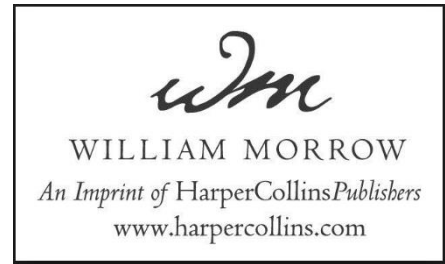
저자 : A. J. Fin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

분량 : 282쪽 페이지

장르 : 소설/스릴러



-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앞두고 치열한 판권 경매와 세계 각국의 오퍼로 출판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작
- * 미국,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판권계약 완료, 독일, 프랑스,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와 경매와 계약 진행 중
- * 홀로 집 안에 틀어박혀 이웃을 엿보는 여자, 팽팽한 긴장과 반전 요소, 히치콕 영화 'Rear Window'와 『The Girl on the Train』, 『The Woman Upstairs』가 결합된 숨막히는 심리스릴러

브라운 스톤으로 지은 뉴욕의 큰 저택에서 한 여자가 홀로 살고 있다. 남편 애드와도, 그가 늘 '우리 호박'이라 부르며 아끼던 딸아이 올리비아와도 떨어져 지내는 애나는 광장공포증 때문에 외출을 하거나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 그 커다란 4층 집에 늘 틀어 박혀 있다. 하루는 주로 오전 늦지막이 시작된다. 몇 번이나 본 옛날 영화를 보고 또 보며, 낮이든 저녁이든 수시로 마셔대는 와인과 함께 애나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간다. 그런 애나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가지 중요한 활동은 바로 창문 너머 바깥세상을 관찰하는 일이다. 애나는 길거리보다 가까운 건물들에 사는 사람들, 이웃들의 삶을 훑쳐보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낸다. 니콘 DSLR 카메라 렌즈는 애나가 초점을 맞춘 대상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표정변화부터 손 동작, 구두를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관한 정보까지 세밀하게 전달해주었다. 히치콕 감독의 대표작 '현기증'에 등장하는 사립탐정 스코티, 혹은 클레어 메수드(Claire Messud)의 소설 『The Woman Upstairs』의 여주인공 노라를 떠올리게 하는 애나의 은밀하고 집요한 관찰은 어느 날, 시뻘건 피가 철철 흐르는 장면이 눈 앞에 나타나면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는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던 애나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그 동안 수없이 창가에 머물며 두 눈으로 본 일들, 혹은 '보았다고 생각한' 일들은 냉혹한 진실과 함께 다시 애나 앞에 나타난다.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 전, 애나는 아동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일했다. 행복하고 단란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이사온 큰 집이 고독과 씁쓸한 외로움이 가득 찬 혼자만의 공간이 된 후에도 애나는 타고난 영민함까지 잃지는 않았다.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에, 넓은 장소에만 가면 심해지는 공포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앞집, 옆집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들의 일상

은 애나의 적절한 시간을 달래는 좋은 구경거리였다. 그런데 근처 207번지에 러셀 부부와 심대로 보이는 아들이 새로 이사오면서 애나의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 세 식구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은 애나가 남편 애드, 딸 올리비아와 그토록 함께 만들고 싶었던 소박하고 단란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러셀 가족에게 애나는 질투심과 함께 묘한 친밀감을 느끼고, 술만 친구로 여기던 생활에서 벗어나 그들과 가까워지려 노력한다.

학교에 나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받는 러셀 부부의 아들 에단과 먼저 친해진 애나는 에단의 엄마 제인과도 친구가 된다. 착하고 아름다운 제인은 애나와 가까워지자, 남편 알리스테어가 다소 강압적이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얼마 후, 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던 애나는 알리스테어가 거실에서 식구들에게 엄한 얼굴로 호통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며 제인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급기야 제인이 집 안에서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이 애나의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평범한 가정의 갈등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기겁한 애나는 경찰에 신고한 후 서둘러 제인의 집으로 달려가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순간 공황발작이 일어나고 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인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은 마치 없던 일처럼 되어 있었다. 아무리 설명하려 해도 애나의 말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애나는 휴대전화에서 낯선 사진을 발견하는데, 그건 분명 자신이 찍은 사진이 아니었다. 집 안에서는 인기척마저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서히, 애나가 믿고 확신하며 겨우 지탱해온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애나가 창 너머로 본 일들은 다 무엇이였을까? 애나의 남편과 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 소설은 『The Girl on the Train』에서와 같이 독자의 눈을 대신해주던 여주인공이 결코 믿음직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흔게야 드러내고,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급변한다. 그리고 진짜 사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화살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에게로 향한다.

<저자 소개>

A. J. 핀(A. J. Finn)은 출판사 윌리엄 모로우의 부사장이자 편집국장인 대니얼 말로리(Daniel Mallory)의 필명이다. 그는 위 작품으로 소설가로 데뷔하면서 출판계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구분하기 위해 필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대니얼 말로리는 리틀 브라운(Little, Brown UK) 출판사의 스페어(Sphere)를 거쳐 윌리엄 모로우에서 일하며 J. K. 롤링, 니콜라스 스파크, 패트리샤 콘웰, 애거서 크리스티, 제니 콜건 등 유수의 작가들이 쓴 작품을 출판해 왔다.

제목 : MIDAIR

가제 : 공중에서

저자 : Kodi Scheer

출판사: Little A

발행일: 2016년 8월 1일

분량 : 211 페이지

장르 : 소설/성장소설



- * “슬픔과 배신에 고통 받던 열여덟 살 여주인공의 오싹한 복수극과 자살 계획 ... 진실게임을 원하던 주인공은 해결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만다” - 「마리골레르」
- * 「허핑턴 포스트」 선정, 2016년 여름 해변에서 읽기 좋은 소설 16권 중 하나로 선정
- * 비영리 출판사 드잔크 북스(Dzanc Books)로부터 20008년 최우수 소설상(Dzanc Prize for Excellence in Literary Fiction)을 수상한 작가의 신작

한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1999년 여름, 모두가 새 희망을 꿈꿀 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절망에 빠진 소녀가 파리로 향한다. 성공해서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일리노이 주 시골에서도 바지런히 공부하던 네사 벅스터의 희망을 앗아간 건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절친한 친구의 어처구니 없는 배신이었다. 기왕 죽을 거면 화려하고 찬란하게 죽어야겠다고 다짐한 네사는 빛의 도시 파리로 가서 에펠탑에서 뛰어내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빠를 잃고 겨우 하루하루 견뎌온 자신의 뒤통수를 제대로 날린 친구 캣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자신이 아까운 목숨을 내놓은 건 다 캣이 저지른 일 때문임을 그 아이가 똑똑히 알게 한 다음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네사의 목표였다. 이 단호한 목표를 칼을 품듯 숨긴 채 네사는 캣을 비롯한 다른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샤를 드 공항에 첫 발을 디뎠다. 그러나 네명의 소녀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온갖 불운한 사고를 겪고, 네사가 시작한 일종의 진실게임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이들은 과연 무사히 여행을 끝낼 수 있을까? 암흑 속에 제 발로 뛰어든 네사는 계획대로 짧은 생을 파리에서 마감할까?

원래 네사는 아주 작은 시골 고등학교에 입학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외국어는 스페인어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일 30분을 운전해서 등교해야 하는 워싱턴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통학이 힘들긴 해도 그곳에선 프랑스어를 배울 수 있었다. 시카고 시내와 한참 떨어진 그 작은 학교에서, 네사는 키란, 휘트니, 캣과 함께 마담 데이비스 선생님의 프랑스어 수업을 들었다. 늘 몰려다니던 넷은 자신들의 모임을 ‘프렌치 클럽’이라 불렀다. 고무잡잡한 피부의 이국적인 외모에 타고난 운동선수인 키란, 새하얀 피부와 금발머리로 전형적인 미국 여학생의 모습을 한 치어리더 휘트니, 그리고 우마 서먼을 쏙 빼 닮은 영리한 부잣집 아이 캣까지 네 사람은 네사의 설득으로 졸업을 맞아 파리 여행에 나섰다. 네사가 어떤 심정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여행을 기획했는지 꿈도 꾸지 못한 채, 셋 다 잔뜩 부풀어 있었다.

네사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빈센트 오빠는 여행을 떠나기 1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육상선수였던 오빠는 1,600미터 경기를 앞두고 한창 훈련 중이었는데, 연습 도중 그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네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빠졌지만, 대학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버리지는 않았다. 목표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슬픔에서 견디게 해준 유일한 힘이기도 했다. 죽어라 공부한 덕에, 네사는 대학입시에서 36점 만점을 거머쥐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네사가 남의 답을 훔쳐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더니, 시험 운영진 측에서 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캣과 답안이 똑같은 것이 그들이 말한 ‘근거’였다. 답안을 베껴 쓴 사람은 캣이지만 부모님이 대단한 학력과 재산을 소유한 힘 있는 사람들인 덕분에, 네사는 누명을 쓰고 자기 손으로 거둔 성과를 그대로 빼앗겼다. 그리고 캣은 예일 대학교에 입학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파리를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에 네사를 제외한 세 소녀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들을 친구라기보다 ‘아는 사이’ 정도로 여기는 네사는 남모를 계획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진실게임을 제안하는데, 장난으로 시작한 그 게임 도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네사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인다. 그리고 네사 일행을 숙소까지 안내해주겠다고 나선 낯선 남자들과의 잘못된 만남은 여행을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간다.

가슴을 꿰고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랐던 네사는 자신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리라 확신했던 세 친구의 남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혼란에 빠진다. 복수심이 그 동안 하루하루를 버티는 유일한 에너지원이 되어버린 지금, 네사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 소설은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내면으로 파고드는 우울증만큼이나, 한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무기력과 절망에 어디까지 빠져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요동치는 네사의 마음을 따라가며,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발버둥이 오히려 스스로도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포착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코디 쉬어(Kodi Scheer)는 미시건 대학교에서 예술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다. 2014년에는 단편 모음집 『Incendiary Girls』를 발표했다. 최근에는 불가리아에서 매년 개최되는 소설 세미나 ‘Sozopol Fiction Seminars’에 참석하여 전 세계 작가, 번역가, 독자들과 만났다. 「시카고 트리뷴」, 「아이오와 리뷰」, 「플로리다 리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작품 활동 등이 소개됐다.

NON-FICTION

제목 : THE BICYCLE EFFECT

가제 : 자전거 명상

저자 : Juan Carlos Kreimer

출판사: Findhorn Press

발행일: 2016년 8월 9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운동



*** 자전거를 타면서 명상을 한다는 컨셉의 책**

*** 세계 각 도시를 자전거로 여행하며 35년간 전 수련에 매진해온 저자가 발견한 새로운 명상법**

명상이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잡생각을 떨치기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명상을 배우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수련원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자세로 해야 제대로 명상을 하는 것일까? 걸음마를 처음 댔 직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저자는 35년 전 전 수련에 입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나아가는 자전거 안장 위에서도 전 명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칙적인 몸과 자전거의 움직임, 일정한 호흡 속에 마음은 자연스레 고요해지고,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자신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과정은 명상으로 도달하는 지점과 같다. 이때 자전거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이나 신체를 운동하는 수단, 즐거움을 안겨주는 여가활동의 도구에 국한되지 않고 정신을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 저자는 오랜 세월 직접 경험한 자전거의 명상 효과를 토대로, 자전거를 타면서 전 수련에서 ‘마음챙김’이라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저자는 명상과 자전거를 타는 것 모두 정신을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두 가지 모두 침묵하게 만드는데, 그 침묵은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알아서 텅 비워지며 자연스레 또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게 되는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수선했던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정화된다. 자전거를 타면서 몸과 자전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쌍방향 의사소통은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과 매우 흡사하다. 명상은 곧 물리적, 정서적, 정신적인 육체를 나란히 일렬로 배열되도록 하여 에너지가 그 사이에서 막힘 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고,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에 속해 있으면서도 속해있지

않는 경계로 우리를 데려간다.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서도 보지 않는 상태, 원한다면 훨씬 더 먼 곳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태, 사람과 자전거 사이에서 경계 없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효과가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정신수련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무(無)에서 얻는 멋진 기분

1부. 갈 길이 먼 자전거 - 현상, 기회

1장. 도시의 자전거족

2부. 내면의 자전거 찾기 - 타고, 즐기고

2장. 자전거 타기

3장. 깨어나라, 에너지여!

4장. 사람-자전거-길

3부. 경험의 법칙 - 관심, 의미

5장. 자전거 올바르게 타기

6장. 조심하라

7장. 흠 없이 유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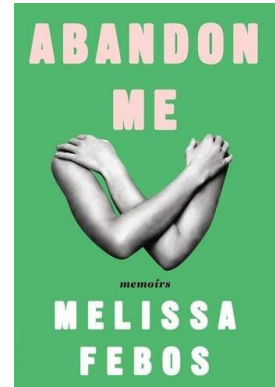
맺음말 1. 나의 자전거 일곱 대

맺음말 2. 세속적인 쟁 수련

<저자 소개>

후안 카를로스 크레이머(Juan Carlos Kreimer)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 겸 출판인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파리, 런던, 리우데자네이루 등 세계 여러 도시로 옮겨가며 살면서 70대가 된 현재까지 거의 매일 자전거를 탔다. 1982년부터 선 수련에 입문했다.

제목 : ABANDON ME
가제 : 나를 버리다
저자 : Melissa Febos
출판사: Bloomsbury USA
발행일: 2017년 2월 2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은유의 수준이 가히 경탄할 만하다 ... 능력이 부족한 작가였다면 좁은 주제에 집중하다 그칠 수 있는 내용을 멜리사 페보스는 보편적인 이야기로 풀어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일그러진 부분까지도 모두 깨워낸 서사”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상실의 아픔,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미칠 듯한 분노와 취한 상태, 혼란, 짜릿함을 그린 강력하고 감동적인 명상” - 『THE UNSPEAKABLE』의 저자 매건 다움(Meghan Daum)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미묘한 권력 관계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평행하고 동일한 관계보다는 한쪽의 마음이 더 무거운 경우가 많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욕망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2011년 발표한 회고록 『Whip Smart』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약값을 벌려는 생각으로 4년간 피학성 성욕을 가진 남성 고객들을 상대했던 시간을 고백하고 인간의 심리적 권력관계를 고찰했던 저자는, 이 두 번째 회고록에서 위태로웠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지나온 사랑을 되짚어보며 정체성을 일그러진 부분까지 모두 깨우기 위해 밟아야 했던 발버둥친 시간을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사랑을 갈구하며 모든 것을 바친 기억을 떠올린 기록이자 욕망과 정체성이 겹치는 지점을 발견한 명상이기도 한 이 글에서, 저자는 가족, 연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함께하고픈 욕구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 시작은 저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생부와와의 비극적인 인연이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인 왕파노아그 족 사람이었던 아버지는 중독되기 쉬운 기질과 원주민의 피만 물려주고 그녀와 엄마 곁을 떠나버렸다. 다시 만난 생부가 마약과 술에 찌든 모습을 보고, 저자는 생부에게 전해 받은 그 두 가지 특성이 충동적인 성격과 자아를 소멸시키려는 본능적인 시도로 깊이, 흥터처럼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공허함, 자신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강압적인 연인에게 기꺼이 지배당하려는 마음도 왜 생겨났는지 그 사실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저자를 어릴 때부터 키워준 두 번째 아버지 또한 지극히 큰 영향을 남겼다. 자식을 향해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지만 선장이라는 직업상 몇 달씩 먼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는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한 깊은 애정과 상실의 고통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을 때면 어린 꼬마였던 저자는 몽유병에 시달리고 온갖 걱정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 자란 후에는 다

른 여성에게 깊은 욕망을 느끼고, 가정이 있는 여성과 수천 마일 떨어진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사랑을 시작했다. 저자는 동경과 거부감을 한꺼번에 느끼게 만든 그 고된 사랑이 모든 것을 소진하게 만들었다고 전한다. 독특하고 놀라운 은유를 통해 삶의 과정에서 만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저자의 솔직하고 때로는 에로틱한 문장 속에는 열정과 집착의 모호한 경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내던지고 결국 포기해버린 고통스러운 기억과, 자기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음을 느꼈을 때, 혹은 잃게 될 것임을 예감했을 때 동시에 찾아온 두려움과 더 없는 기쁨의 모순되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유년 시절의 기억, 종교, 심리, 신화, 대중문화를 넘나드는 저자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은 희한하리만치 보편적이고 공감을 불러 일으킨다.

<목차>

기도서

흔적을 남기다

내 이름을 불러줘

미로

내 모든 것

분더캄머(개인 박물관)

창가에 선 소녀

나를 버리다

<저자 소개>

멜리사 페보스(Melissa Febos)는 뉴저지 주 몬머스 대학교에서 글쓰기 부교수로 일하면서 미국 인디언 예술연구소의 예술석사 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다. 첫 번째 회고록 『Whip Smart』로 프레리 스쿠너(Prairie Schooner), 스토리 쿼터리(Story Quarterly), 여성 작가 센터(The Center for Women Writers)가 수여하는 상을 수상했다.

제목 : EAT STRESS FOR BREAKFAST

가제 : 아침엔 스트레스를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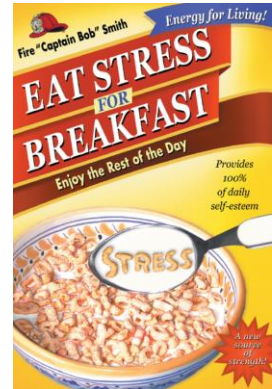
저자 : Fire "Captain Bob" Smith

출판사: Code 3 Pub

발행일: 2001년 3월 1일

분량 : 268쪽

장르 : 처세



★ 2001년 출간 이래로 매우 좋은 서평을 받고 있는 심리처세서

★ 베테랑 소방관 겸 인생 코치, 강연가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저자의 유쾌한 스트레스 해소법

푹 잠을 자야 할 밤이 되어도 스트레스가 좀처럼 가시지 않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다. 활활 타오르는 스트레스의 불길을 잡고, 진짜 인생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30년 이상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스트레스,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대인관계 기술 전문가로도 활약해 온 독특한 이력의 저자는 손발이 착착 맞는 팀원들과 화재 현장을 다시 정상으로 만드는 과정처럼,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치솟은 사람들에게 그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과 그래야 할 필요성을 이 책에서 전한다. 저자가 토크쇼나 강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 미국 전역의 대형 기업들과 함께 원활한 업무와 발전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함께 일해온 시간들을 통해 직접 전달하고 다듬어 온 현실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저자의 유쾌한 설명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결한 문장으로 접할 수 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은 소방서에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신속히 해야 할 일을 분담한다. 불길이 타오르는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하러 내부에 진입하는 팀과 열기와 유독한 기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붕을 뚫는 팀으로 나뉜다. 체계적인 분업과 망설임 없이 차례로 진행되는 구조작업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한 인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킨다. 저자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장생활까지 모두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는 화재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얼른 꺼뜨리지 않으면 삶이 균형을 잃고 휘청댈 수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각자 역할을 나누어 맡아 화재 진압이라는 공통된 결과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처럼, 회사나 개인적인 삶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친구, 가족, 고객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로 인한 건강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통계 자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잠시라도 한눈 팔면 경쟁자에게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은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컴퓨터를 마치 몸의 일부처럼 가까이에 두는 생활을 일상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식과 정보가 또 다시 스트레스를 낳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이런 정보수단을 ‘전자 발찌’와 같다고 지적한다. 현대 사회의 환경이, 대인관계가, 스스로가 만든 스트레스는 사람들에게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압박감과 초조함을 부여한다.

저자는 이런 오도가도 못할 상황에 놓여 불행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의 불길을 잡아내는 효과가 검증된 100가지 요령을 소개한다. 부담 없이 가볍게 읽으면서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더 큰 피해를 날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서 겸 인생 지침서다.

<목차>

1. 긴급 구조요청 911
2. 수백만 명이 잠 못 드는 미국
3. 전자 발찌
4. 감당 못할 기분을 잠재우려면
5. 섞기 vs. 균형 찾기

일/ 직업

6. 신호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7. 미끼를 조심해라
8. 변화가 변화를 부른다
9. 면접 정복하기 - 성공적인 구직 면접을 위한 정보
10. 언제부터 즐겁게 살 거예요?
11.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신체 (12-14장)

돈과 재산 (15-16장)

정신적인 삶 (17-26장)

관계 (27-39장)

부록 A, B

<저자 소개>

‘캡틴 밥’으로도 불리는 밥 스미스(Bob Smith)는 베테랑 소방관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강연하고 방송 토크쇼에도 출연해 왔다. 전국 강연자 협회(National Speakers Association) 소속으로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개발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강연도 진행해왔다. 저서로는 남미,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등 22개국에 번역된 『Fire Up Your Communication skills』 등이 있다.

제목: THE ELDEST DAUGHTER EFFECT

가제: 장녀는 특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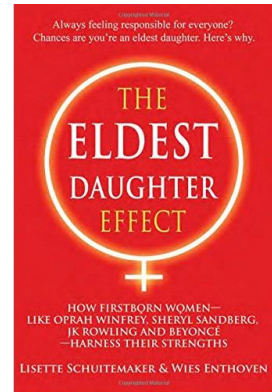
저자: Lisette Schuitemaker, Wies Enthoven

출판사: Findhorn Press

발행일: 2016년 10월 4일

분량: 192 페이지

장르: 육아/가족



- * “이 책을 다 읽고 비로소 장녀인 나와 집에서 막내인 동업자 사이에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장녀라는 사실이 태도와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깨달았다.” – ‘Rethink Press’ 편집자 겸 작가, 루시 맥캐러허(Lucy McCarraher)
- * “장녀에게는 마치 거울을 보듯 빈틈없이, 웃음이 터질 만큼 정확하게 자신을 비춰주는 책” – 유아심리학 박사, 홀리 뢰(Holly Ruhl)

2014년, 영국 신문 「옵저버(Observer)」 헤드라인에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했다. “메르켈 총리, 힐러리 클린턴, 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 오프라 윈프리, 셰릴 샌드버그(페이스북 운영책임자), J.K. 롤링, 비욘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기사를 쓴 담당기자는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목록에서 이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도 정답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바로 집에서 첫째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첫째가 다른 형제들보다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첫째 딸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출생 순서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각자 집에서 장녀인 두 저자는 그 해답을 찾아 나선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녀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책임감 있고, 의무에 충실하고, 사려 깊고, 신속하게 행동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특징, 그리고 언어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실행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과 같은 밝은 면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와 능력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책임감이 과도하여 완벽해지려고 하거나, 막중한 의무에 쉽게 짓눌리는 안쓰러운 부분도 있다. 부모들은 첫째 딸을 ‘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느끼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형제들은 누나와 언니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탄탄한 증거로 뒷받침되는 장녀의 특별한 기질에 관한 값진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로 태어난 여성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에게는 장녀와 다른 형제들을 각각에 맞게 양육하는 팁이 될 만한 유익한 자료가 제시된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된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장녀가 태어난 직후와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이 아이와 부모에게 주는 영향을 살펴본다. 부모의 유일한 아이였던 첫째가 급변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

생활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5장에서는 모든 장녀에게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고, 6장에서는 완벽해지려는 장녀들의 기질에서 비롯되는 어려움과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7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는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특징을 토대로 세상에 나아가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공통분모를 찾아보고, 우정, 일, 사랑, 결혼과 출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누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명한다.

장녀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고, 부모와 다른 형제들에게는 장녀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꼬마 여왕
2. 탄탄한 기반
3. 둘째의 등장 - 이제 어찌지?
4. 180도 다르다
5. 다섯 가지 핵심 특성
6. 완벽주의 성향
7. 평생을 함께 하는 친구
8. 목적이 있는 일
9. 진짜 사랑
10. 장녀가 낳은 장녀
11. 가족의 춤은 계속된다

연구과정과 네 가지 연습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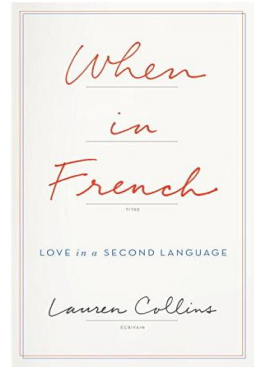
태어난 순서의 영향에 관한 지식 테스트

<저자 소개>

리세트 슈이트마케(Lisette Schuitemaker)는 인체 에너지 연구가인 바바라 브레넌이 설립한 ‘브레넌 힐링 사이언스(Brennan Healing Science)’에서 공부하고 사람들의 자기계발을 돕는 코치로 활동해 왔다.

비스 엔토벤(Wies Enthoven)은 기자, 교사, 저술가로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제목 : WHEN IN FRENCH
가제 : 프랑스어로 말할 때
저자 : Lauren Collins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 “언어의 기술과 친근감에 관한 깊은 생각에 관한 세심하고 아름다운 글. 외국 생활과 사람간의 관계, 언어의 역사, 문화의 융합을 각각 다룬 여러 권의 책을 합쳐놓은 것 같다.” - 「뉴욕타임스」
- *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실례로 삼아 분석하고 자신의 삶에 사회과학적인 시각을 비추어 언어와 의미론, 언어의 문화사에 관한 입문서를 완성했다.” - 「타임」
- * 아마존 2016년 9월 우수도서로 선정, 영국,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나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외국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남편의 모국어를 마스터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조금씩 프랑스어의 세계로 한 발짝씩 들어서면서 그 생소한 언어와 사랑에 빠진다.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온 몸으로 직접 경험하며 떠올린 다양한 생각과 언어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호기심과 열정이 가득한 유쾌한 문장으로 들려주는 매력적인 책이 완성됐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그 말은 곧 언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 저자는 서른 초반, 커리어를 키우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가 프랑스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후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사실 저자가 유럽의 여러 나라 중 영국에서 일해보기로 결심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언어가 다른 곳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보르도 지역에서 나고 자란 남자 올리비에에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 별 무리 없이 사랑을 키울 수 있었지만 저자는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서로 평생 함께하기로 한 두 사람은 프랑스어를 쓰는 스위스에 보금자리를 잡고, 그 때부터 저자는 언어 장벽과 제대로 마주한다. 미국에서는 「뉴요커」 상근 기자로 일하면서 미셸 오바마며 도나텔라 베르사체에 관한 기사를 멋지게 쓸 만큼 글 쓰는 능력이 나뉘어 뛰어났던 사람이 전등 하나 사려고 해도 단어를 몰라 살 수가 없는 일이 생기고, 올리비에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건 꼭 장갑을 낀 채로 사랑을 나누는 것 같다고!”라는 말까지 듣고 말았다. 아이가 생기면, 자신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남편과 교감하고 식구들 속에서 고립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지속되던 어느 날, 결국 저자는 프랑스어를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한다.

미국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을 사람은 물론 가장 좋아하는 과자에도 쓸 수 있지만 올리비에에는 그

렇게 모호하고 부정확한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듯 언어에 녹아 있는 문화의 차이를 프랑스어를 배우며 서서히 알게 된 저자는 언어의 역사와 각기 다른 문화를 탐구하며 새로 배우기 시작한 프랑스어는 물론, 남편과도 진한 사랑에 다시 빠지게 된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혀 지루하지 않게 위트와 유머, 온갖 실수와 사고에서 느낀 좌절감과 놀라움을 솔직하게 담아서 읽는 재미를 더한 흥미로운 회고록이다.

<목차>

1. 과거완료
2. 과거진행
3. 과거
4. 현재
5. 조건절
6. 가정법
7. 미래

<저자 소개>

로렌 콜린스(Lauren Collins)는 2003년부터 「뉴요커」에서 일했다. 2010년부터 유럽으로 옮겨가 런던, 파리, 코펜하겐 등에서 기사를 썼다. 「데일리 메일」에 게재된 기사로 런던 외신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기사(Feature Story of the Year award)’ 결선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에 관한 기사 ‘Fire-Eaters’로 제임스 비어드 상(James Beard award) 후보에 올랐다.

제목 : THE AGE OF THE HORSE

가제 : 말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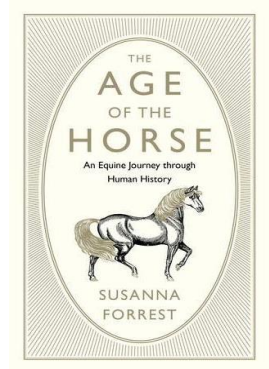
저자 : Susanna Forrest

출판사: Atlantic Books

발행일: 2016년 10월 6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역사



- * “말이 왜 그토록 매력적인지 분명하게 따져보고, 말을 향한 저자의 강렬한 열정을 전하는 멋진 책” - 「데일리 텔레그래프」
- * “저자 자신이 말에 계속해서 끌리는 이유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려준다.” - 「가디언」
- * “풍성한 정보와 함께 인류 문화와 역사에서 말의 역할을 생생하고 우아하게 설명한다.” - 옥스포드 대학교 고고학 교수 피터 미첼(Peter Mitchell)

인류는 말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며 함께 살아왔다. 등에 올라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하고, 수레나 쟁기를 말에게 매어 끌게 하거나 등에 무거운 짐을 매어 운반한다. 또 말 젖을 마시고, 말고기를 먹고, 전쟁이 나면 말을 타고 싸우고, 애완동물로도 애지중지 키운다. 말은 인간에게 부와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자 순수성, 음탕함,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매개체이기도 했다. 5,500년 전부터 말을 가축으로 사육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은 사람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말의 매력에 푹 빠져 살았던 저자는 이처럼 인류의 반려 동물로, 가장 위험하고 고된 일을 대신해 주며 함께 살아온 말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몽골 고원지대와 베르사유 궁전, 베이징의 세련된 폴로 클럽, 미국의 말 농장과 요새, 경매장 등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폭넓은 조사를 통해 저자는 말에게 주어진 역할을 조명하고 ‘마력’에 힘입어 인간의 문화와 경제가 어떻게 번창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인류 역사에서 말은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 왕궁에서 거행된 화려한 퍼레이드는 물론이고 전투 장면이나 빅토리아 시대 안개가 자욱한 거리 풍경, 느긋하게 손 흔들며 걷는 왕과 왕비의 모습, 열심히 밭을 가는 농부의 곁에도 항상 말이 함께 하니 말을 빼놓고 역사 속 장면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다. 사람들은 말이 얼마나 값진 동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5,600만 년 전 최초의 지구에 밭을 디딘 말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 말 지키는 일을 전담한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다. 귀중한 식량 자원이자 농업, 산업을 이끈 도구로, 전장을 누비는 전사로, 인간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저자는 인류학적인 지식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을 조합하여 방대한 고대 문서와 문학작품, 예술에 등장하는 말의 역할과

지위를 종합하여 인류의 발전은 말의 진화와 맥을 함께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말이 생활하고 활용되는 현장을 저자가 직접 찾아가서 관찰하고 수집한 자료들이 더해져,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말이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어딘가에서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 동물로, 다른 어딘가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 된 현 상황을 인간과 말이 공존해온 오랜 역사와 함께 다각도로 조명하고 말을 향한 저자의 열정과 통찰을 오롯이 담아낸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진화 - 양파가 백합이 될 수 있다

가축 - 이빨, 무덤, 그리고 말젖

야생 - 발 빠르고 사나운 동물

문화 - 말은 희한할 정도로 현명하다

힘 - 건초를 생물연료로

고기 - 미국인들은 말고기를 먹지 않는다

재산 - 기사와 꿈, 그리고 천국의 말

전쟁 - 말이 전사인가?

<저자 소개>

수잔나 포레스트(Susanna Forrest)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 인류학을 공부했다. 현재 베를린에 거주하면서 저술과 편집 일을 하고 있다. 음식의 역사에 관한 글로 소피 코이 상(Sophie Coe Prize)을 수상했다.